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시편 93] 1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 주의 왕좌는 옛적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 오 {주}여, 큰물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물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였으며 큰물들이 자기들의 물결을 높이나이다. 4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나이다. 5 오 {주}여, 주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오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히 합당하옵나이다.

1. 현 세상의 도전과 우리의 신앙

한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느끼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세에 대한 실망과 아울러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통치 행위를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에 빠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고 하늘 보좌에서 오는 양식을 나누어야 하는 종의 본분을 놓아버리고 낮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지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엘리야가 아합의 사악한 부인 이사벨의 악독한 협박에 두렵고 힘이 빠져서 유대 광야로 도피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손으로 그를 만져서 힘을 얻게 하여 호렙산으로 여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왕상 19:1-8].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호렙산으로 여행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계속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4 년간 극좌 세력의 준동을 억제하고 과거 민주당 정권하에서 수립되었던 여러 잘못된 시책과 법령들을 바로 잡는 등 미국과 세계의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큰 격려와 소망을 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2020 년 미국 대선은 극심한 부정 선거로 인하여 중공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긴 치매 노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선거 부정에 힘입어 민주당이 하원 뿐 아니라 상원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불행한 사태에 빠져 오늘까지 온 미국 사회가 혼란과 폭동, 하나님의 기준들에 반하는 각종 법규들로의 회귀, 코비드 사태를 구실 삼아서 온 사회를 꼼짝 못하게 묶어 놓고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사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20 년간 계속되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결하는 여러 조치들을 이해하기 힘든 어리석은 정책으로 잘못 수행하여 수십억불에 상당하는 무기와 장비를 탈레반에게 넘겨주고 그 나라에 잔류하고 있는 미국민을 온전히 구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잘못을 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에 아합과 이사벨이 바알 숭배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사회의 영적, 도덕적 기강을 심히 부패하게 초래함으로써 여러 하나님께 충실한 백성들에게 분노와 절망을 갖게 했던 사실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온전한 신뢰와 경외심이 손상을 입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아픈 경험을 갖게 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올바르게 하여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합니다.

2.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도우심

시편 93 편의 1 절의 말씀은,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심으로써 위엄을 입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으면 온 우주 만물위에 계시는 통치자로서의 위엄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의 어떤 세력의 권능에 비할 바가 못되며, 그 큰 능력으로 띠를 띠고 계시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세상이 크게 흔들리고 혼돈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끼므로 이 구절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비록 얼마간 세상이 혼돈스럽고 우리의 소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절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을 때 세시간 동안 암흑이 예루살렘을 덮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박혀 계시는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암흑으로 거부하시고 그분을 버리셔서 사흘 동안 사망의 암흑에 두셨습니다. 그래야 인간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에 제자들은 모두 절망과 혼돈과 두려움에 싸여 흩어지고 그들의 신앙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오는날 우리의 경험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93 편의 기자는,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갈파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 등 인간에게 매우 유해한 물질을 포함시켜서 급히 만든 백신을 강제로 맞도록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이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비드로 사망한 사람들의 65 퍼센트는 온전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니 백신이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죽음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요? 이미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이나, 매우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등을 막론하고 개인의 자유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정책은 마치 계시록에서 종말 시기에 강요하는 짐승의 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계 13:16-18].

[요한계시록 13:16-18]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아직은 666 표식을 받아야 하는 때는 아닙니다만,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태를 보면 휴거 후에 남은 크리스찬들이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하여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참된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휴거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축복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거되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굳게 신앙을 지키며,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진리를 지키는데 용감해 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크리스찬들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데 전신 갑주를 입고 용감히 전투하라”고 격려합니다.

[에베소서 6:11-13]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13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떤 목회자들은 신도들에게 정부의 모든 시책에 순종하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1930-45년 기간에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순종하여 온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데에 자신들을 파시스트 독재자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본 호퍼 목사 등 극소수의 의인들만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카톨릭 교회도 히틀러를 칭송하고 그의 정책들을 옳다고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독일 기독교인들은 크게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신앙적 비전으로 정부의 시책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세상이 혼돈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충실하지도 않은 채로 회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 영웅들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처한 처지를 보고 격분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와 화평을 가져왔던 용감한 분들이었습니다. 노아,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호세아, 이사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 스테반, 사도 바울 등 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국에는 전광훈 목사 등의 용감한 전사들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옳지 못한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3 오 {주}여, 큰물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물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높였으며 큰물들이 자기들의 물결을 높이내이다.4 높이 계신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니이다.

우리를 휩싸고 허리케인 아이다처럼 몰아치는 비이성과 반하나님적, 친사탄적인 광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벽같은 신앙의 무기로 이러한 거대한 물결에 담대히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많은 물들의 소리보다 강하시며, 참으로 바다의 강한 파도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군 생활을 하면서 바다의 거대한 물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무서운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거대한 물결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온 세계를 삼키려고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물결들을 이기고 승리를 얻게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사흘간의 죽음을 이키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 모두도 승리하도록 분이 되신 것입니다.

[시편 68:20-21]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의 탈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좌절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전투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굳게 믿음을 지키고 두려움 없이 싸우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참된 의인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